

해남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AI교육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예산투입
을 5곳 시범운영 후 전 센터 확대
AI산업 유치 대비 미래인재 양성

“AI 교육으로 아이들 꿈 꾸우고, 지역 인재 육성
합니다.”

해남군이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본격화하며 미래 디지털 인재 육성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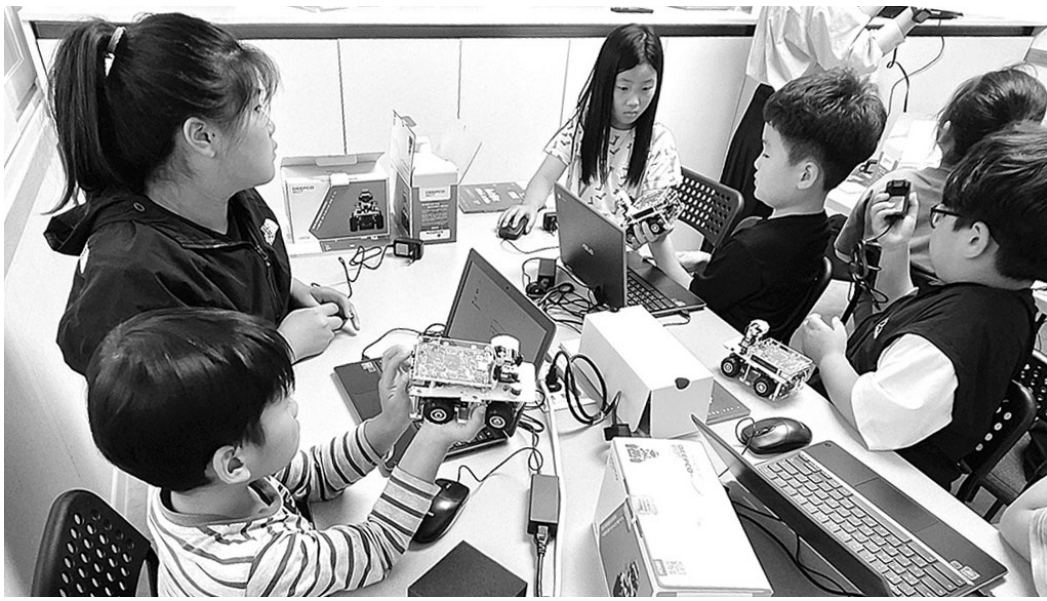
해남군은 올해 5개소를 시범 운영해 2028년까
지 해남군 내 전체 24개 지역아동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태블릿, 딥코봇 등 AI 학습기기와 전문 강사를
활용해, 아동들이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인공지능
기초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제로봇올림피아드
등 대회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따
라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되며 2025년에는 70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글로벌 AI 데이
터센터 유치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으



해남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태블릿과 딥코봇 등을 활용한 AI교육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로 미래 산업기반에 걸맞은 지역 인재 양성이 필수
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 시기부터 AI 교육을 접하는 기
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아동들이 해남형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
상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어촌 아이들이 디지털 기술
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교육격차 해소에 힘쓰
고 있다”라며 “AI 교육과 더불어 미래 산업에 적합
한 지역 인재 육성 기반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
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맛플무안몰 회원 4만명 돌파...양파 할인전

4월 3만명 이어 2개월만에 성과

무안군은 온라인 쇼핑몰 ‘맛플무안몰’ 회원 4만
명 돌파를 기념해 오는 23일부터 무안 양파 40%
특별 할인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맛플무안몰은 지난 4월 말 개장 1년 만에 회원
수 3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단기간에 회원 수 4만
명을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최근 양파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
가를 돕기 위해 무안군이 선제적으로 추진한 양
파 소비 촉진 운동과 맛플무안몰에서 진행된 양

파 할인 기획전의 높은 호응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두 차례 운영한 양파 소비 촉진 기획전에
서는 총 33t의 판매를 기록하며 조기 매진됐다. 이
어 진행된 제3차 무안양파 30% 할인 기획전에서
도 70t 이상이 판매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올렸
다.

김산 무안군수는 “앞으로도 농산물 소비를 촉진
해 생산 농가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정
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영암군민속씨름단 후원회 운영위원들이 출범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영암군민속씨름단 후원회 출범...“성장기반 마련”

초대회장 신창석 신영종합개발 회장

영암군은 씨름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
한 발전에 힘을 모을 영암군민속씨름단 후원회가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초대 후원회 회장으로 신창석 (주)신영종합개발
회장이 맡는다.

운영위원은 김한모 HM그룹 회장과 양백근 (주)
경기화성 대표, 정갑중 (주)아리온산업개발 회장,
이광준 대한회계법인 대표, 서장수 HD현대상호

총무부장, 류인규 버들농산 대표, 전고필 영암문
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등이 위촉됐다.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창단 이후 전국 단위 대회
에서 꾸준한 성과를 거두며 ‘K-씨름’을 대표하는
팀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우승회 영암군수는 “후원회가 유네스코 인류무
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통씨름 가치를 계승하
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씨름단이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
원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신안 퍼플섬 ‘보랏빛 향기’ 버들마편초 만개

3만 9000㎡ 부지에 68만주 장관

신안군 안좌도 퍼플섬이 온통 보랏빛 향기를 뿜
어내고 있다. 무더위와 장마전선을 지척에 두고
있으면서도 지금 퍼플섬은 버들마편초 꽃으로 가
득하다.

버들마편초는 버들잎처럼 좁은 잎 모양 형태와
긴 꽃대 끝에 꽃이 달려서 ‘마편’, 즉 말채찍처럼
생겼다 하여 ‘버들마편초’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속근버베나’라고도 불린다.

버들마편초는 5월 말 꽃이 피기 시작해 7월 중순
꽃 커팅에 들어간 후 약 3주 후에는 다시 꽃을 볼 수
있다. 5월 말부터 8월까지 내내 꽃을 볼 수 있다. 퍼

플섬 3만 9000㎡ 부지에 68만주가 식재돼 있다.

특히 반월도를 중심으로 활짝 핀 버들마편초 꽃
은 별 조형물과 멀리 바라다보이는 퍼플교와 바다
그리고 반월카페, 하늘까지 함께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신안군은 9월 말부터 4만 2455㎡ 부지에 32만
주가 식재된 퍼플섬 아스타 정원에서 아스타 꽃 축
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바람에 실려 오는
버들마편초 향기와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이 마
치 보랏빛 물결을 보는 것 같다”면서 “세계적인 관
광 명소 퍼플섬에 전 국민을 초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130년 씨간장’ 완도 성백전통식품, 발효대전 3관왕

고금면 4대째 이어 온 맛의 비법
고추장·된장·간장 등 장류 생산
전복 찜장·씨간장 소스 등 호평

완도군은 지역 전통 발효식품을 대표하는 성
백전통식품이 ‘제7회 대한민국 장류 발효 대전’
응용 소스 개발, 된장, 간장 등 3개 부문에서 수
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장류 발효대전은 발효식품 전문가들
과 장류 제조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네스코 인
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 장담그기 문
화를 기념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성백전통식품은 완도 고금면에서 4대째 이어
져 온 맛의 비법으로 직접 재배한 재료만 사용해
오랜 발효 과정을 통해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전
통 장류를 생산하고 있다.

이번 대전에서 씨간장 슬러드 소스, 전복 찜
장, 비파 찜장 등 완도 특산물을 활용한 장류를
출품해 우수한 품질과 독창성, 상품성을 고루 인
정받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장(대
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상(금상), 한식
진흥원이사장상(금상)을 수상했다.

성백전통식품 이주영 대표는 130년 동안 가문
에서 대물림된 씨간장을 활용해 건강하고 깊은
맛의 발효식품을 보급하는 데 힘써왔다.



완도 성백전통식품 이주영(왼쪽) 대표가 대한민국발효대전 3개 부문을 수상했다.

〈완도군 제공〉

이 대표는 “130년 전통 장의 명맥을 잇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의미 깊은 길이라 믿
는다”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정직한 맛으로 우

리 전통의 가치를 이어가며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응용 제품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